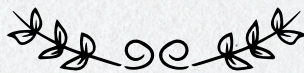


# THANK YOU, TEACHER!



Dear, CMS 선생님들

안녕하세요.

이번년도부터 아들을 CMS에 보냈습니다.

두돌 지나고 처음으로 보내는 거라 적응기간이 필요했지만  
지금은 너무나 잘 적응하고 신나하면서 다니고 있어요.

다 선생님들이 잘 케어해주신 덕분입니다.

제일 좋았던 부분은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아이한테 대해주시는 것  
같아 좋았습니다. 아껴주시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.  
코로나때문에 아이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드셨을텐데  
그래도 철저히 잘 지켜주셔서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잘 다녔  
던 것 같습니다.

말이 늦은 아이인데 학교보내고 이것저것 보고 배우는게 있어서 그  
런지 조금씩 느끼게 보여요.

이번 학기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

항상 감사합니다.

Sincerely, Bae

